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이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7월 25일 (토) 제 1786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위기의 시대,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Businessagility.institute,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의 코로나이후 예측 통해 미래목회 준비 소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제한적으로 재개됐던 교회 실내 예배에 대해 지난 13일 다시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0명 이하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실내예배를 드리고 있던 캘리포니아 교회들이 다시 드라이브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30개 카운티에 내려진 명령은 교회 실내예배뿐 아니라 피트니스센터, 미용실, 식당, 영화관 등 개인 서비스와 실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결국 하루 6만명을 웃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팬데믹이 진화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경제 재개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따라서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 일자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는? 부동산, 농업, 미디어, 국제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여행과 레저산업은 어떤 인식의 변화를 겪고 전망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수많은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현장예배를 재개하려고 했던 한인교회들 역시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당장 사역에 큰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리더로서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를 미리 예측하고 면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인지 예상, 대처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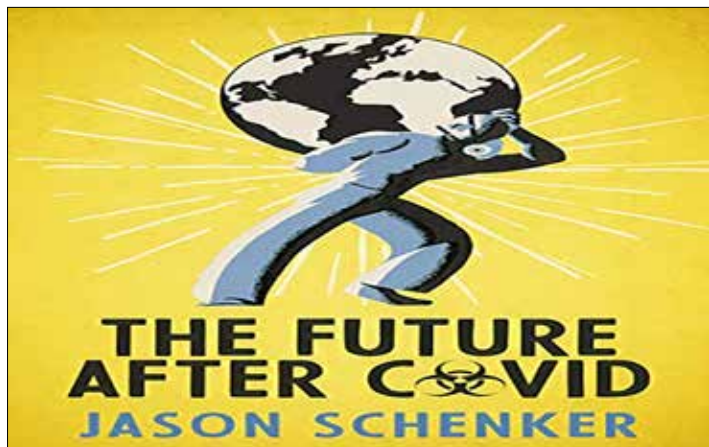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Futurist Institute)'의 회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예측을 내 놓는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제이슨 쉐커(Jason Schenker)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기회는 존재한다"고 말한다("The Future After COVID-19"). 그리고 "먼 미래에 더욱 중요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그의 말처럼 교회가 심각한 피해와 손실을 입은 현재 상황가운데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1. 교인들의 일터에 나타난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 근무 환경을 선호하게 됐다.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다수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줄이고 있다. 재택근무의 보편화는 사람들의 업무 및 생활 방식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일 직장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는 자리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중에 직장을 잃게 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는 성도들의 삶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AI나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과 관련된 직장들은 계속 대두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고 원격업무가 이뤄지기 힘든 직장업종이 도태될 것이다. 이미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 늘어남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손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내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일터에 두드러진 변화

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진 성도가 늘어나면서 교회 출석인원이 줄어들고, 목약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 교인들의 터전에 드리운 새로운 삶

코로나19는 교인들의 터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전염병 전파를 우려한 정부의 조치로 학생들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자

연스럽게 온라인 교육이 확대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정규 교육 등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 부문에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가족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자녀와의 소통이 부재했던 부모들은 평소보다 과도하게 길어진 소통의 시간을 부담으로 느끼게 됐다.

부모와 관계가 개선되는 자녀들도 있는 동시에,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부모와 자녀들도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보다 많은 가정이 가정 내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교인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3면에서 계속)



마스크 착용에도 성별 차이 있다!

BBC, 남자가 여자보다 마스크 덜 쓰는 이유 보도

한참을 다룬 후 모니카(가명)는 과감한 결심을 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도 그의 남편 에두아르도는 계속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세계 2위다. 그래서 모니카는 리우데자네이루 인근의 집을 떠나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저는 천식이 있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데도 제 남편은 계속 제가 편중적으로 군다고 생각했어요." 모니카는 BBC에 말했다. "자신이 집 밖에 나갈 때는 밀폐된 곳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와 우리 아들에게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남자가 더 많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 모니카와 에두아르도의 이야기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젠더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Coronavirus face masks: Why men are less likely to wear masks).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 보호 장비나 마스크를 착용할지 꺼린다고 한다. 이는 과거의 팬데믹에서도 발견됐던 양상이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400만 명이 넘고 59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든 상황에서도 그렇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

르면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다. 당초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에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제는 실내에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추천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나성근 목사 4면



팬데믹 시대의 선교... 김정현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유를 돕고자 하는 모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020년 제5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13일(목)~21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물결, PGM 7대핵심까지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 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 선교), QT, 난민선교, 삶의 선교, 웨일즈선교, 전문인선교 사례 (농축산), 히스패닉사역
• 2차 (파송대상): 8월 13일(목)~28일(금) 오후 7시~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필라도심선교, 영적전쟁, 인도네시아선교, 1대1 제자양육, 전도훈련 등의 선교사 집중훈련
준비사항
온라인 훈련
준비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물,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일 7월 31일(금)
문의처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고훈 목사 PGM 정책이사장 뉴욕 하안교회
김은범 목사 PGM 정책이사장 사명의글로벌비전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행총무
고대은 목사 Antioch All Nations Church
양충언 목사 Antioch Spanish Church
김영민 목사 PGM 한국본부장
Rev. Gus Kim Grace Church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계 훈련부장
이민재 선교사 PGM 훈련담당
박상수 선교사 PGM 선교사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폴현 선교사 PGM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John Park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 선교사 (농축임/수위전문)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민/공물전문)
양용태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난민전문)
조영태 선교사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함춘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교회개척)
David Kim PGM 선교사 (U.K, 제자양육전문)
Susan Kim PGM 선교사 (U.K, 제자양육전문)



발행인 칼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 젊은이가 선배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배 그리스도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을 하였다 그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볼 수 없다는 뜻이고,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세상과 이별을 하였으므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셋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힌 존재인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자가 적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뗄 수 없었던 바울,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화려했던 그의 과거를 깨끗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신 삶을 살았다.

그는 이것저것 둘러보며 살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앞에 놓인 그리스도라는 뜻대를 향해 달렸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신 소명을 위해 살았다.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더 없는 행복이었다. 수욕, 구타, 위협, 감옥, 심지어는 목 베임을 당했다는 그의 처절하고 두려웠던 죽음의 순간도 바울을 결코 흔들지 못했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만이 자랑이었던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못 자국 난 손으로 얼마나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을까.

영국의 유복한 가정, 캠브리지 대학 출신, 청년의 정욕 등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살았던 찰스 스테드(C. T. Studd)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한번 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해진 일은 영원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는 바울과 같고 스테드와 같은 자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오늘날 같이 암울한 시대에 나 잘났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본래 기독교는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가 아니다. 도리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드리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도전적인 종교요 헌신적인 종교이다. 한번 뿐인 인생,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종교이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데 가짜가 도리어 더 반짝거리며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다. 진리의 종교요 순결한 종교인 기독교까지 가짜 판을 쳐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 없이는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곳으로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다. 우리는 궁급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한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야멸치게 차가운 레즈비언 교수에서 하나님 품으로

CT, 크리스천 경멸했던 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 사모 간증 소개

미 연방대법원이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지난 6월 15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기존 법률이 성적지향이나 젠더(gender)에 의한 차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지 동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28개주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게 합법이었을 만큼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따른 직장내 차별이 여전했다. 이 문제를 놓고 수십 년 동안 투쟁해왔던 LGBT(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들은 트럼프 시대에 나온 이 뜻밖의 승리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쟁점이 사라진 건 아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이번 판결의 해석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 10월부터 진행될 재판이 그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나 크리스천 직장에서 어떻게 성소수자들에게 다가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늘 크리스천을 경멸했던 좌파 레즈비언 교수였던 로사리아 샴페인 버터필드(Rosaria Champagne Butterfield) 사모의 간증은 도움이 된다(My Train Wreck Conversion: As a leftist lesbian professor, I despised Christians. Then I somehow became one).

'예수'라는 단어는 항상 내 목구멍에 걸린 큰 가시 같은 느낌이었다. 아무리 킁킁거리려도 시원하게 뱉어낼 수가 없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예수를 아는 것"을 뉘 대단한 거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도 지극히 컸다. 크리스천들은 특히



리버 구조 활동, 일신론적 보편주의론과(Unitarian Universalist-삼일위체설을 부정하고 일신설을 주장하는 일신론과 인간은 결국 모두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론을 통합한 교파) 교회 활동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관심사를 공유했다.

아무리 로버트슨과 그 무리들이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라도 나와 내 파트너가 이웃을 배려

"너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 로사리아."

"J, 만약 성경이 진실이면 어떻게 해?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면 어떻게 하나고? 우리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라면?"

나 독서 능력이 형편없어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문장을 끝내야 할 시점에 마침표가 아니라 자신이 읽은 성경구절을 끼워 넣느라 열심이었다. 그런 행동은 대화를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내기 일수였다.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위협적인 존재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과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한 내 느낌이었다. 특히 그림 등에서 본 삼부모처럼 생긴 예수의 모습은 무척해 보이게까지 했다.

나는 조만간 '종신 재직 급진주의자(tenured radicals-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좌파 출신의 급진적 교수)가 될 운명의 영문학 및 여성학 교수로서 도덕과 정의, 연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프로이드와 헤겔, 마르크스, 다윈의 세계관을 열렬히 추종했으며, 항상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도덕을 중시했다. 만약 예수와 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의 문화적 기반이 되지만 않았더라면, 그럭저럭 그들을 잡아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199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팻 로버트슨이 페미니즘에 대해 빈정거린 내용은 정

말이지 기가 막혔다.

"페미니즘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을 저버리고, 자녀를 살해하고, 마녀술을 행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레즈비언이 되게 만든다." 나는 극도로 분노했다. 그리고 공화당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뒤섞여 올려 퍼지는 기독교 교리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다.

종신재직 심사를 통과한 후 나는 좌파 레즈비언 교수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나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와 레즈비언 파트너는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 보건 및 문맹퇴치 활동, 골든 레트

하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LGBT공동체는 타인에 대한 환대를 중시했고, 진심을 다해 능숙하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대접할 줄 아는 집단이었다.

나는 기독교 우파의 정체와, 우리 같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그들이 쏟아내는 증오의 정치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 바로 그 책, 즉 성경을 읽어 봐야 할 것 같았다.

(9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제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광고문의: 347-223-1531 718-886-4400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식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Medicare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위기의 시대,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

(1면에서 계속)
이전에는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터전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면으로 하는 소그룹 참여가 불가능해 신앙생활의 도움을 얻지 못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삶의 터전이 더욱 척박해져 영육의 건강을 놓고 신음하는 영혼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히게 됐다.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학습하게 된 것이다. 우리말로는 '탈진실'이라고 번역되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는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뜻한다. '허위합의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포스트 트루스'에 집중한다. 본질적으로 고도로 개인화된 특성을 가진 SNS가 주관적인 진실을 양산해내고 사람들을 동질화한 작은 집단으로 묶었다. 이

사용시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미디어에 사로잡히고 주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져 목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커는 "미래에 닥칠 위함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펜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코로나19 이

가 악화되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목회적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 미디어가 성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장악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주관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탈진실' 현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그룹으로 모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사실은 여전히 온라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목양적인 도움과 목회적인 상담, 구체적인 양육을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여름휴가조차 가지 못하는 코로나19시대 여름에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는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방역 지침이 완화된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3.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미디어

코로나19는 산업 전반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문제들을 악화시켰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SNS 상에서 이른바 '허위합의편향(false consensus bias)'에 빠지는 문제가 대두됐다. 미네소타주립대학의 단 자코 박사에 따르면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규칙을 위반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나 선호, 신념, 행동이 실제로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허위합의편향'이라고 부른다. SNS상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노출되는 게시물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 선호, 믿음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통해 많은 교인들이 SNS와 같은 미디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굳



작은 집단에서 객관적 진실과 현실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되고, 고도의 개인 맞춤형 정보가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며, 사람들은 동질적인 허위집단을 이루고 지극히 주관화된 정보들을 소비하고 공유한다. 교인들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아진 개인시간을 더욱 미디어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포스트 트루스'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지고, 이는 더 많은 미디어

후에도, 방역조치 이후에도 미래가 존재한다. 성도들은 일터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로 인해 삶이 불안정해지고 목양적 도움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성도들이 온전한 목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성도들은 삶의 터전에 드러난 새로운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관계

지 않으며 '나약함의 상징'이라 생각한다는 걸 발견했다. "이는 특히 마스크 사용이 의무가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지." 카프라로 박사는 설명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쓸 의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집 밖에서 마스크를 쓸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남성은 마스크를 쓸 의향이 여성에 비해 낮았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남성이 자신들이 여성에 비해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

마스크 착용에도 성별 차이 있다!

(1면에서 계속)
또한 많은 나라에서 상점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는 필수다.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마스크를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걸까? 남성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

구에는 미들섹스대학교의 발레리오 카프라로와 캐나다의 수학자 헬레네 바르셀로가 공동 수행한 것이 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25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마스크를 덜 쓸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부끄럽고 멋지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시론

새로운 소시오미터(Sociometer)로 바라보자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사회심리학자인 마크 리어리(Mark Leary) 듀크대학 교수가 만든 소시오미터(Sociometer)라는 말은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에 관한 내면의 수치(數値)를 일컫는 말이다. 즉, 내가 나의 자존감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람직한 동업자로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통계를 기준으로 자신의 수용 및 소외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은 것을 뜻한다. 특히 요즘처럼 대면(對面) 만남보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공간에서의 만남에서 소시오미터는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바

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가 올린 게시물 자체의 질(質)이나 의견의 중요성보다는 이 게시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 즉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친구요청을 하고 팔로워가 되어주는지를 통해 나의 내면수치(內面數値)를 가능하게 되었고, 오히려 대면만남보다 더 자아중심적 사고에 갇히게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 마음 속의 나를 꺼내볼 수 있는 소시오미터가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좋겠지만 기계(?) 속에서 기계를 통해 만나는 인간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 태초에 만드신 인격적 관계에서 멀리 떠나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외로운 세상에 갇힌 새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예배,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들이 그동안 공동적으로 이해되어온 목회적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공동체라는 한 울타리의식을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극히 당연한 찬양대의 합창은 멈추게 되었고, 우주일처럼 여전히 불변한 마스크나 가림막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야하는 모습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 후 성도의 식사교제(만찬)은 물론 거룩한 성찬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하나 됨을 가르쳐온 공동체신앙이 이젠 하나되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갈 바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교회의 소시오미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예배, 물론 혼자서도 드러야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지만 그동안 함께 모여 드려온 회중예배를 통해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신앙동지(同地)에서 떨어져 나와 상당히 낮은 숫자에 머물러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예배와 성찬이 두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큰 영적 허전함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영상으로 성찬을 인도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가르쳐주신 성찬을 화면을 통해 나누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상의 성찬이 되어야할 성도의 교제 또한 사라졌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지혜와 행복의 식탁을 그리워하지만 언제 다시 식탁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요원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세상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백성을 개발하면 된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한면 검열되었던 사람이 다시 2차, 3차 검열이 된 경우도 속속 나타나고 있으니 이만큼에서 인간은 행복의 손을 들어야할 것만 같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도 한계가 있고, 찾아내는 방법도 해결책이 못한다면 우리 그냥 바이러스에게 행복의 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인류의 허둥대는 멸망의 모습 앞에서 '나에게 절하라'는 사탄의 오만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이젠 정말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이젠 정말 길이 없다. 내일 날이 밝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밤, 돼지우리 안의 둘째 아들이 생각한다. 아직 현실은 어두운 밤, 주변은 돼지똥냄새, 온통 더러운 오물구덩이인 그 우리 속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미 현실의 담을 뛰어넘어 고향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9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 공고

아리조나 피닉스시에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교인인 사랑의 공동체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할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청빙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M. Div. 학위 취득자)
 - 2)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한 분
 - 3) 미국 체류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소유한 분)
 - 4) 3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력에 있는 분(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 제출서류**
 - 1)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각 1부
 - 2)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사진포함)
 - 3) 목사 안수 증명서
 - 4) 신앙 고백서, 목회 비전 또는 목회계획서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 6) 추천서 2부(추천인의 연락처 포함)
 - 7)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링크(Video file, Website 또는 YouTube link)
- 보내실 곳**

Love Community Church
 사랑의 공동체교회 청빙위원회
 25418 N 7 th Ave
 Phoenix AZ 85085
 또는 email: hyokchun@yahoo.com
- 서류제출 마감일** 7월 31일 2020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1) 청빙에 관한 문의로는 이메일(hyokchun@yahoo.com /권혁준 장로)로 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교회에 관한 정보는 lccaz.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ccaz.com

사랑의 공동체교회
 LOVE COMMUNITY CHURCH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질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Dr. 지킬과 Mr. 하이드

법학자요 의학박사로서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열심히 앞장선 지킬드 박사는 시대를 초월한 영리한 남성의 로망이었다. 문제는 이런 겉모습과는 반대로 남몰래 이중생활을 살아온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킬드 박사는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여 선으로 악을 조절할 수 있는 실험에 착수한다. 묘한 약품을 만들어낸 지킬드 박사는 자신이 직접 실험대상이 되었다. 이 비약을 마시자마자 급세 고상한 지킬드 박사는 사라지고,

비열한 모습의 완전히 다른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 급변했다. 낮에는 고상하고 존경받는 지킬드 박사, 밤에는 온갖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하이드 씨로 살면서 사회적 체면으로 억눌려 살아오던 스트레스를 분출해낸다. 아무도 몰라보는 하이드로써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게 된 지킬 박사는 순간순간이 기뻐다. 실험이 지속되면서 이제 는 악을 먹지 않아도 스스로 하이드로 변신하는 비법도 터득했다. 해독제를 삼키면 본래

의 지킬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점점 약물의 중독으로 해독제가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만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경찰 살인범이 된 지킬드는 더 이상 쫓길 수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영국의 작가 로버트 스톨슨의 지킬드 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설의 간단한 내용이다. 이 작품은 훗날 격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헐크'라는 작품을 파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Dr. 지킬과 Mr. 하이드는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욕정으로 가득했던 당시 유럽사회의 위선에 대한 고발장이기도 했다. 하나님중심의 전통적인 낭만주의에서 권태를 느낀 서구인들이 서서히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탈출을 시도하던 시대였다. 인간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인 철학과 사고문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고함소리가 전통적인 권위와 질서들로부터 탈출하도록 부추겼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지식욕을 채우려했던 파우스트도 역시 동반자 역할을 하고 본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통제할 책임을 갖고 있다. 스스로가 자신들을 잘 통제하게 될 때 인간들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모든 인간관계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리를 이루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사회적 유명도를 누리는 인간이라고 해도 내면의 질제되지 않는 악을 추종해서는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누구나 안고 있는 내면의 선과 악이라는 이중인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퀴즈문제를 냈다. 할아버지가 어려서 흰 강아지와 검정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웠는데 이 놈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다. 어느 강아지가 이겼을 것 같으나? 알아 맞춰 보거라! 정답을 모르겠다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힌트를 주마! 네 마음에 두 마리 강아지가 싸우고 있다면 어떤 강아지가 이길 것 같으나?' '흰색 강아지가 이길 것이지요?' '그럼 힘이 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밥을 많이 먹이면 되겠지요...' '그래! 맞다. 밥 많이 주는 강아지가 이겼단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선이라는 흰 강아지와 악이라는 검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고'(ego)와 '수퍼이고'(super ego)의 갈등이라고 설명한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육체의 욕망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이라는 드라이브에 끌려 살지만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드라이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갈5:21-23).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충족을 안고 살아가다. 식욕이라는 본능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의 연장을, 안정의 욕구를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성욕을 통해서 인간의 고독을 해결하고 후손들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이 본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생 행복의 지름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적정선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침으로 기대치 않은 비극을 만들어 낸다. 과식과 무절제를 통해서 육체적인 건강을 상하기도 한다. 특히 성적 인 욕망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커다란 상처와 비극을 겪게 된다. 그러나 선하게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덕망을 받고 미래의 좋은 후손들을 이루며 존중받는 가문을 이루

게 된다. 조물주는 이 기본적인 욕망을 통해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 사도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살펴볼 때 자기 안에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탄식하기도 했다(롬7:19-).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꺼지지 않는다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았을까? 이 독신의 생활은 특별한 은사를 받기 전에는 가능치 않다고 했다. 정욕이 불일 듯 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고전7:9). 따라서 성경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삼가 해야 할 일도 충고하고 있다. 자신만의 우물에서 흡족하게 마시는 것이 절음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물을 타인으로 하여금 마시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권하고 있다(잠5:15-). 사회적인 인권 보호와 연약한 여성의 권익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이중인격과 성결한 삶을 관리하는 것이 Dr. 지킬로 영원히 살아남는 비법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나성균 목사 (샬롯장로교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쳐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고 있다.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도 힘든 때에 과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피해 곧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모이기도 어려운 때에 모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의 선조들은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 노아에게서 배우는 바가 너무도 크다. 방주 안과 밖에서의 그의 예배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를 통한 배움과 영감을 통하여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깨어 있는 것이 되고 펜데믹도 온전히 극복하게 될 줄로 굳게 믿는 바이다.

없었을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지붕에 굽은 비 쏟아지는 소리, 노아 여덟 식구를 비롯하여 열이 나는 온혈 동물들 때문에 밀려오는 더위와 습기, 탁한 공기, 좁은 공간, 짐승들에게 매일 먹이를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지루한 나날, 짐승들의 싸우는 소리, 그들의 배변과 방뇨...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만 되었다. 그 옛날 에어컨이나 선풍기 한 대만 있었을지 모르겠다. 오죽하였으면 어떤 영화가 묘사하였듯이 그들이 거의 미칠 지경의 삶을 살았을까?

예급 이후의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실패의 가능성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구원과 감격을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원망 불평 싸움 책임전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가 방주 안의 여덟 식구나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예배로 충만한 삶,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인생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실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

었다.

이렇게 하여 옆 사람 또 그 옆 사람을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여진 말씀은 마침내 커다란 자원이 되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열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자유가 주어져 조금씩 말이 허락되었을 때에는 온 수용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가 되다 시피 하여 그 지극지극한 삶을 무사히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분과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곧 예배의 삶만이 극한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때만이 이 팬데믹을 이기고 새로운 축복과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 방주 밖에서의 예배

분명히 믿기로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분개 은혜의 근원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 하여야 할 일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만 잘 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이번 기회에 바로 이 관념을 확실히 정립하도록 하자!! 내가 이제까지 평안하고 아무 문제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과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는가? 만의 하나라도 그렇지 못 하였다면 이번의 팬데믹 기회가 말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었다. 내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축복하시었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인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홍수 주시던 때처럼 하시면 얼마나 혼란할까? 심음도 거둠도 없음은 물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뜨거운 여름에도 더위를 원망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눈을 쓸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벌이며, 정권에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정치 사상범 수용소 독방에 수용되어 지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은혜로 살아났는데... 수감되어 어머니께서 자주 불러 달라시던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낚은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부르고 또 부르는데,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벽을 자꾸 친다. "선생님, 좀 더 큰소리로 불러주세요. 좀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몇 번 그 일이 있어 도대체 누구인데 그러는가? 불러주고 알고 지내고 보니 젊은이가 개척교회 아버지에게 심히 반항하다가 아주 탈선하여 마음대로 살아 타락하여 사고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곳까지 왔다가 그 찬송소리를 듣고 바로 그 찬송이 그 젊은이도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이었기에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이파하고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 얼마 후 석방이 되었다.

찬송 한마디를 중심으로 하여 부르고, 기도 한 마디에 정성을 싣고, 설교 한 마디에 인생을 거는 거룩한 예배...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는 기적의 현실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문을 나서기 전에 내가 실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고치며,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각자가 아이টে임을 마련하여 실천할 때, 참된 예배자로 응답을 받고 기적과 치유 그리고 행통과 행복이 우리의 것으로 반드시 찾아오야 할 것이다.

revskna@gmail.com

팬데믹과 예배

창세기 8장 20-22절

1. 방주 안에서의 예배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10일을 지내게 되었다. 375일쯤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여덟 식구가 지냈을까?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기 짝이 없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이야말로 죽지 않고 살아남 감격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일주일 이후 일, 한 달, 두 달... 계속되는 동안에 어떻게 처음 마음만 같았겠는가 말이다. 그들도 아담 타락 이후에 부패한 성품을 타고 태어났기에 우리와 절대로 많은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점점 불편하고 지루하고... 여름 장마철에 하루를 지나본 기억이 나는가? 아니 한 여름 수련회에 건물 가득히 앉아서 여러 시간 수련회에 참석하여 보았는가? 장마철 낮 동안에도 하얗고 밤에 깜깜하고...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떠하였을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섭리로 생각보다 나았을지 언정 아마도 틀림없이 보통 지나기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여전히 하루 하루 일년 365일 10일을 참고 지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심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창세기 6:9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을 가진 그가 무려 120년이 나 방주를 짓는 동안 온갖 조통과 욕설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철저한 왕따를 당하면서도 연단되어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버텼기에, 같은 신앙으로 방주 안에서의 삶에서도 예배로 승리하였다.

그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과 축복과 그것에 대한 감격도 잠시, 출

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월남에서 미국과 월남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을 다루는 월남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였다. 부자유, 영양 결핍, 움푹달라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도무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입만 열면 극형에 처하겠다는 사슬이 시퍼런 지옥의 삶을 살던 어느 날이 삶의 탈출구를 생각해낸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 옆의 병사에게 입 모양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주었다. 말씀을 나누는 방법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날 말씀으로 엄청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은 그는, 다시 자기가 기억하여낸 다른 말씀을 다른 옆의 병사에게 나누

받은 이후에 120년 동안 연단 받은 노아의 영적 리더십에서 날마다 방주 안에서의 예배와 경건생활에 승리한 여덟 식구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감격을 갖고 자기들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맨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 반제 곧 온전한 헌신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되었다. 나오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궁금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가? 여기 저기 다녀 보고 싶고,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모습이 궁금하고 새로 씩이 나서 자라는 식물들이 궁금하며, 특별히 이제 어디다 새 삶의 보금자리를 펴기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인가? 등등 하고 싶고 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였더라면 어떻게 노아의 예배가 빛을 발하였겠는가?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어 가장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다. 21절 후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사실을 아시면서 노아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중심을 다한 예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때의 그 태도, 하나님은 너무도 귀히 보시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희망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간접 약속이라고 믿는다. 인류의 희망 없음을 아시면서도 다시는 물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영원 속죄를 간접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서 이제 이후로 다시 자연 은총을 베푸시며 자연법칙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인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홍수 주시던 때처럼 하시면 얼마나 혼란할까? 심음도 거둠도 없음은 물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뜨거운 여름에도 더위를 원망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눈을 쓸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벌이며, 정권에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정치 사상범 수용소 독방에 수용되어 지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은혜로 살아났는데... 수감되어 어머니께서 자주 불러 달라시던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낚은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부르고 또 부르는데,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벽을 자꾸 친다. "선생님, 좀 더 큰소리로 불러주세요. 좀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몇 번 그 일이 있어 도대체 누구인데 그러는가? 불러주고 알고 지내고 보니 젊은이가 개척교회 아버지에게 심히 반항하다가 아주 탈선하여 마음대로 살아 타락하여 사고치고 이렇게 기가 막힌 곳까지 왔다가 그 찬송소리를 듣고 바로 그 찬송이 그 젊은이도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이었기에 들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이파하고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어 얼마 후 석방이 되었다.

찬송 한마디를 중심으로 하여 부르고, 기도 한 마디에 정성을 싣고, 설교 한 마디에 인생을 거는 거룩한 예배...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는 기적의 현실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문을 나서기 전에 내가 실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고치며,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각자가 아이টে임을 마련하여 실천할 때, 참된 예배자로 응답을 받고 기적과 치유 그리고 행통과 행복이 우리의 것으로 반드시 찾아오야 할 것이다.

revskna@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펜스 부통령, 대법원 판결에서의 승리극찬-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권이 행했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종식되었다' 고 선포!

"종교의 자유"에 더 큰 힘을 실어준 미연방 대법원의 27가지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수요일, '종교의 자유'에 큰 힘을 실어주는 두 건의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판결은 "성적지향 특례" 조항의 의미를 넓힘으로 성적지향자들이 LGBTQ(동성애) 단체나 개인들의 소송으로 부담한 일을 격지 않도록 보호하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역차별이나 부당함 받는 것을 금지하며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을 바탕으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차별금지법"은 미국에서 원래 "인종, 남녀 성별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기존하고 있던 "차별금지법-Non Discrimination"의 의미를 "친동성애/친성전환" 범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을 지키려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역차별하고 부당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신앙을 위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들은 지금 미국 사회, 정치, 언론, 문화, 교육 및 가정의 가치관까지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역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기독교)종교에 기반을 둔 단체들이 지난 10여년간 강력히 반대하던 오바마 케어안에 의무적으로 낙태를 강행했던 조항을 빼는 것에 찬성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두 번의 큰 승리다. 신앙을 가진 모든 미국인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오바마-바이든 이전 정권의 공



격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의 모든 신앙의 편에 설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라고도 알려진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부분별한 낙태와 낙태피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오바마 케어보험을 든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화했었는데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음). 그것 역시 무효화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며 선물인지 강조하는 연설을 여러 번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HHS는 2018년 "낙태/피임 의무" 조항에서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고용주들을 예외시켜주는 새로운 규칙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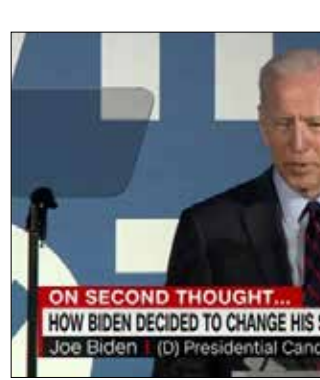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은 이번 주에 "친생명 성향의 트럼프 법규를 뒤집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자신은 여성들이 원하면 어떤 시기든 태아는 낙태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공보장관인 케리 맥에나니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펜스와 오바마-조 바이든의 차이점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했습니다.

맥에나니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the Little Sisters of the Poor'라

는 수녀들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여 피임 혜택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려 했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지나치게 경직되고 잘못된 약한 노력을 막고 종교적 자유의 편을 들었다. 오늘날 그것은 다시 한번 신앙인들이 갖



고 있는 양심의 권리를 입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부터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역차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여성들을 위한 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행정부(오바마-바이든)와 달리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신념을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 종교단체들이나 개인의 신앙을 베풀 필요 없이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번에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편을 들어 내린 두 가지 새로운 판결을 통해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만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기독교)종교의 자유'가 다시 한번 거센 공격을 당할 것임을 주지시켜주며 미국을 위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번 27가지 판결들은 많은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모로 부담을 덜어주는 감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용 후에 갑자기 LGBT로 커밍아웃을 하는 직원들이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들에 대한 조치 문제가 힘들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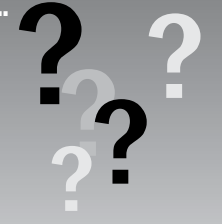
거나 직원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종교단체들의 신념(faith)에 따른 건강보험 결정을 보호하는 방침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도 낙태에 대한 보험 커버(cover)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승리의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그리고 현 행정부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며 실천하도록 계속 강력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크리스천으로 예술을 하는데 제 주변에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있는지요? 동성애자들은 날 때부터 동성애 유전인자를 타고 나기 때문에 동성애 성향을 고치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컬버시티 joe

A: 좋은 질문입니다. 고신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있는 신원하 교수는 동성애에 동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性向, orientation)으로서의 동성애와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행동(行動, activity)로서의 동성애로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영어로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 gender)라 말합니다. 1)레즈비언(Lesbian)-여성이 여성에게 끌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의 레즈비언(lesbian)은 그리스의 에게해 (Aegean Sea)에 있는 한 섬 "레스보스(lesbos)"에 있는 여성들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 동성애가 많았다고 합니다. 2)게이(Gay)-남성이 남성에게 끌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게이(gay)는 프랑스어 "게(Gai, 기쁜, 즐거운)에서 나온 말로서 성관계로 육체의 쾌락을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3)양성애(bisexuals)는 동성끼리는 물론이고 이성들과도 성관계(sexual intercourse)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음란한 부도덕 성관계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4)트랜스젠더(Trans gender)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성을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

성은 출생시 고정, 인위적 변경은 불가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의술로 전환하는 것인데 트랜스 섹슈얼(Trans sexual)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동성애는 폴리가미(Polygamy 일부다처 혹은 일처다부혼) 혹은 폴리아모리(Polyamory, 많은 사람과의 열연된 관계, 성관계를 일대 다수 혹은 다수 대다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원하 교수에 의하면 동성애의 원인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을 주장하는 학자는 동성애자들의 유전자들의 패턴과 배열이 이성애자들의 그것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이것이 동성애를 유발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태아의 성장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서서히 성장하면서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홀몬수치가 낮으면 여성 홀몬수치가 높고 여성 동성애자들은 그 반대라는 주장이 19세기에 등장하였으나 연구결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홀몬수치는 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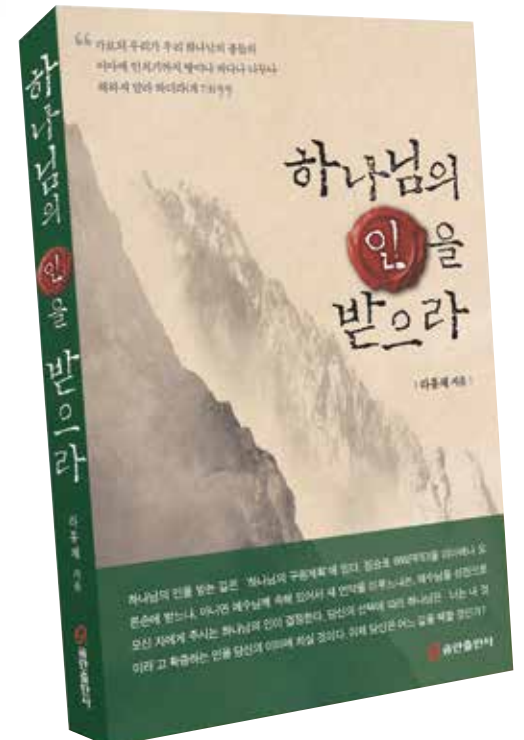
둘째,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동성애가 심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동성애는 주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관계의 역기능에서 발생하지만 때로는 자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친밀한 또래의 집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레즈비언의 경우 어린 시절 남자들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어 남자신뢰를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강력하게 대행해주는 가정가운데서 혹은 원치 않는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과의 관계를 통해 그 결손된 사랑을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심리학적 이론일 뿐입니다. 성은 출생시 고정되어야 하며 인위적 변경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와 네팔의 문다산탈(MUNDA SANTAL)

인도 북동부와 네팔의 문다산탈족은 9개의 다른 종족으로 이뤄져 있지만, 그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인도의 비하르 서부 벵갈, 오리사주에 분포되어 있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비하르 주 남부의 초타나그푸르 고원 산지에서 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평야에서 사는 것을 택했다. 이 지역 외에도 인도전역에서 농사와 공장노동자로서 널리 퍼져 있다.



인도남부 벵갈만 해안 인근에 살고 있다. 문다어라고 하는 문다산탈족의 고유언어는 오스트로-아시아어계에 속한다. 문다산탈족의 부족문화는 산업화와 새로운 교통연락, 부족의 복지계획,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같은 외부영향의 충격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삶의 모습

문다산탈 부족들의 기원 관련 전통은 불확실하지만 원래 초타나그푸르의 밀밭지대는 여러 토착 부족 종족들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평야지대에 영국의 식민정부가 세워졌다. 1831-32년에 문다족의 반란이 있었고 1855-1858년에 산탈족의 봉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9개 문다산탈족 가운데 단

지 부미즈족에게만 지도자가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

문다-산탈족의 80%가 생계로 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농촌 가정은 방직업을 가내수공업으로 또는 마을수공업으로 하고 있다. 사냥과 채집으로 불충분한 농업소득을 보충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부는 밀밭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농경작은 제한되어 있다. 또 관개지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다른 소득원이 개발됐는데, 북동부의 차농장에서 일하거나 제철공장에서 일한다든지, 힌두교 지주들의 일용 노동자로 일하는 것도 있다. 초타나그푸르 고원은 인도에서 광산이 가장 풍부한 지대이므로 문다산탈족의 일부는 광산에서 일한다. 또 주안고족을 제외하고는 문다산탈족에는 돌무리아(Dhankuria)라는 총각들의 공동 거주지도 있다.

문다산탈족에게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춤에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부족 총각에는 무도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

이고 가다비족은 변화를 잘 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힌두의 장인들이 부족들이 쓸 물건 대부분을 대어준다. 이 부족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열리는 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일부 마힐리 사람들은 읍내 시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대나무 바구니 제품을 내다판다.

문다산탈족이 사는 곳은 대개 강의 계곡과 밀밭을 베어낸 침식지대, 광업과 산업 지대에서 산다. 사람들 대다수는 웅기종기 모인 마을이나 길이 하나인 마을에서 산다.

문다산탈족은 공동 조상을 둔 씨족으로 나뉜다. 씨족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 종종 결혼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하위부족에서는 부족내 사람들과만 결혼하도록 허용한다. 또 주안고족을 제외한 모든 문다산탈족에는 돌무리아(Dhankuria)라는 총각들의 공동 거주지도 있다.

문다산탈족에게는 풍부한 예술적 유산이 있는데 특히 음악과 춤에 있어서 그렇다. 대부분의 부족 총각에는 무도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마

을사제가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마일은 "주장"에 의해 운영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차야트(Panchayat)라는 종교학자 또는 승려가 지문을 한다. 부족내 대부분의 갈등은 토지 소유권이나 결혼에 관련된 것이다.

신앙

문다산탈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 구별된 정체성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부족들 대부분이 힌두교도이며 그 밖의 사람들은 전통종교를 지키고 있다.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의 "그들 마음에 있는 영원(Eternity In Their Hearts)"에서 우리는 그들이 섬기는 고대신인 "타쿠르 지우"(Thakur Jiu, 진짜 신)를 알게 된다. 그들이 "마란 부루"(Maran Bura)라는 큰 산맥의 신령을 무서워하여 타쿠르 지우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신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조상이 현재의 땅으로 이주해오면서 마란 부루와 맹세를 하고, 위령제와 마

술, 태양숭배를 행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의 최고신은 태양신이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신 외에 또 힌두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였다. 힌두의 마을사제는 의식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자이며 많은 힌두족제를 지킨다. 그들은 전능한 창조자와 '어머니 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야기리아, 부미즈, 가다비, 주안고족 등 일부 부족들은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소수의 부족이 선교단체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직 1%도 채 안 된다.

문다산탈족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마을회의에서 그것을 받아들여기로 한 후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영접한다. 이 소중할 부족들은 추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참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 별세

금세기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현대판 청교도'로 불리던 제임스 패커(J. I. Packer, 사진) 캐나다 리젠티칼리지 명예 교수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패커 교수는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와 함께 20세기 대표 복음주의자 중 한 명이다. 90여년 생애 중 70년을 저술 활동과 교수 사역에 힘썼다.



패커 교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를 향해 회개와 거룩을 촉구했으며, 신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동행, 자신의 죄와 싸우라고 채찍질했다.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무오한 성경의 권위를 지켰다.

1926년 영국 태생인 그는 옥스퍼드 코퍼스크리스티칼리지에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저작을 만나면서 확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 이후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 20년간 '청교도 콘퍼런스'를 열었다. 77년엔 RC 스프링, 존 게르스트너, 노먼 게이슬러, 그레그 반센 등과 함께 국제성경무오협회를 구성했다. 이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시카고선언(1978)을 끌어낸 기초가 됐다. 창립 논쟁에서도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를 역설했다.

대표작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롯해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기본진리' '청교도 사상' 등 300여권의 책과 사전 편집, 기고 글 등이 있다. ESV성경의 책임 편집자를 역임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뿌리가 된다"며 체계적인 신앙 지식 추구를 주문했다.

패커 교수는 복음주의 가치 수호에도 앞장서, 동성결혼에 찬성하던 캐나다성공회(ACC)에서 탈퇴했으며, 자신의 성공회 주교 면허도 반납했다.

"김치 먹어서?" 佛교수가 밝혀낸...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중 하나가 '김치'라는 프랑스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더 선은 지난 13일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가 이끈 연구진이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과 독일의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이유에 주목했다. 두 나라는 식생활에서 발효한 배추나 양배추를 주식으로 먹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은 김치를, 독일에서는 양배추를 심격하게 절여 발효시킨 사워크라우트를 먹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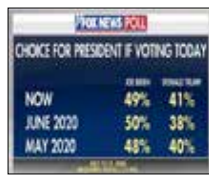
연구진에 따르면 발효한 배추는 사람 세포막에 있는 효소인 ACE2(엔지오텐신전환 효소2)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 ACE2와 결합해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데, 김치와 사워크라우트가 일종의 'ACE2 천연 억제제' 역

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식생활이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근거로 스위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스위스 내에서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선 독일식 김치인 사워크라우트를 먹어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가 더 적었다고 설명했다.

장 부스케 교수는 "이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국가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건 코로나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지지 "코로나 뚫고 투표장 가겠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바이든-트럼프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고, 좁혀지기도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 대선이 실시되는 11월 3일 맹위를 떨치더라도 투표장에 가겠다는 비율은 트럼프 지지층이 바이든 지지층보다 높았다.

폭스뉴스는 이를 감안할 경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 3% 포인트 앞설 뿐이라고 지적했다. 투표 열기는 트럼프 지지층이 훨씬 높은 것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대선 결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55%의 지지율을 얻으며 40%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눌렀다. 두 사람의 격차는 15% 포인트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15일 미국 유권자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WP와 ABC가 지난 5월 25일-28일 실시했던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50%)이 트럼프(43%)를 10% 포인트 차로 앞섰었다.

약 두 달 사이에 바이든과 트럼프 격차가 5% 포인트 더 늘어나면서 15% 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다.

폭스뉴스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41%의 트럼프 대통령을 8% 포인트 차로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15일 미국 유권자 11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폭스뉴스 여론조사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3일-16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50%)이 트럼프(38%)를 12% 포인트 차로 눌렀었다. 하지만 한 달 사이 그 격차가 4%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폭스뉴스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지지층 중 25%는 코로나19가 대선 당일 에 극심하게 확산될 경우 '투표장에 안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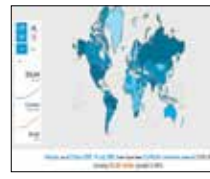
그러나 트럼프 열성 지지층에선 '코로나19로 투표장에 안 가겠다'고 답한 비율이 1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는 이런 사정을 감안할 경우 바이든이 트럼프를 겨우 3% 포인트 앞선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WP·ABC와 폭스뉴스 모두 올해 미국 대선이 '코로나19 대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코로나19가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됐다"면서 "코로나19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코로나19 하루확진 26만명 육박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에 육박하며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을 비롯해 중남미, 남아시아 등 코로나19 재확산 국가들에서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일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9848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전날의 23만7743명을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7360명을 기록해 지난 5월 10일 이후 하루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

미국에선 하루 동안 6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370만명, 사망자는 1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주간 전체 50개주 가운데 43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었고,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선 연일 하루 1만명 이상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는 월드오미터 기준 2만 6549명, 누적 확진자는 207만5246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도 7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브라질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산타카타리나주 등은 다시 봉쇄에 들어갔다고 미 CNN방송이 전했다.

멕시코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도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33만1298명이다. 멕시코 역시 지난달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했다. 인도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영국 BBC방송은 "전문가들은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이미 세계 3위지만 정점을 찍을 때까지 아직도 수개월이 남았다고 경고했다"며 "뭍바이와 벵갈루루 등 피해가 큰 지역은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모더나 '코로나백신' 최종임상 27일 개시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오는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정보 등록 사이트 '클리니컬트라이얼즈(ClinicalTrials.gov)'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에는 3만명의 참가자가 등록할 예정이다.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은 미국 내 87개 연구시설에서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30개주

와 워싱턴DC에 골고루 분포해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이 텍사스·캘리포니아·플로리다·조지아·애리조나주 등 최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이다.

참가자는 임상시험 첫날 100μg의 실험용 백신을 접종받고 29일 뒤 두 번째 접종을 하며, 일부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를 투여한다.

모더나는 지난 5월 초기 단계 임상시험 결과 최소 8명의 참가자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다.

미 연방정부는 5억 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첫 대규모 임상시험을 허가하는 등 모더나의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비자 취소 안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이민정책을 8일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신입생들로 타격을 좁혀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엘리스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국 정부와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대(MIT)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이어 "과거 규정이 다시 효력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규정이란 미국도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3월 발표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만 받아도 비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를 의미한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와 MI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열린 법원의 첫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후퇴를 결정했다. 법원 심리도 4분이 안 돼 끝났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주지사들, 마스크 착용의무화 반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일부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들은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권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두고 씨름을 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요구가 강해질수록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진앙지였던 뉴욕 주에선 지난주 배우 모건 프리먼이 등장하는 마스크 착용 캠페인 영상 광고가 베일을 벗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 뉴욕 주는 국내 확산세가 커지면서 2차 파도를 우려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성향에 의해 나누지 않고 하나로 연대해야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면서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당신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신앙

한국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신앙을 지니고 있다.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고스라니 드러났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현대교회에도 뜨거운 신앙의 전통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의 특징이 기도생활에 가장 잘 나타난다.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연속기도 등 다양한 기도모임이 있다.

뜨거운 기도는 신학과 교리의 구분을 넘어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어왔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길 간절히 원한다.

젊은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생활은 매사가 낯설고 불편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현대교회에서도 뜨거운 신앙이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맹점이 있다. 외식이 없는 순전한 뜨거움은 각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망이지만 뜨겁다는 것에 대한 정가가 분명하지

않아 혼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내적 열망이 외부 행동으로 연결되어 드러나는 과정에서, 각자의 신앙적 배경과 경험, 그리고 개인 성격과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래 종교

조선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자신들을 찾아온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며 다가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열악한 선교 상황에 굴하지 않았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의 결단을 엿볼 수 있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6)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3)-한국적 신앙?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하늘님 신앙

조선인들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은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옳다.

이와 같이 전래종교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상황 속에서 서

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했다. 서울 합정동에 소재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을 때마다 조선을 위해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

조선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선교사들의 공이 크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

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로 시작한다. 이후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 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73년 대원군이 하야한 뒤에 외국과 외교사절을 교환하면서 조금씩 눈을 넓혀갔지만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있다면 그것은 조선인들이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1세기 전 조선에 '서학'이란 학문으로 가톨릭신앙이 소개되었다.

전주교는 이승훈과 정약용 등을 중심으로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조상숭배를 거절하는 천주교인들은 전통적 유교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하여 심한 박해를 가하였다.

조신모 목사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이지 않은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옳다.

자기 소원성취위해 절대자를 대면하려는 한국적 신앙정서 버려야 뜨거운 신앙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고 있는지 점검

양인에 의해 새롭게 전해진 기독교가 한국인 고유의 종교성과 어떻게 접촉 되었을까? 현대 교회의 신앙적 뿌리가 지닌 특성을 밝혀낼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국인들의 종교성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닌 샤머니즘적 신앙이다. 앞에 언급된 유교와 불교의 경우에도 샤머니즘 신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 하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민족이 샤머니즘 신앙은 지녔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늘님'을 우두머리신으로 섬긴 것이 특징이다.

하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

거하면서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이다. 그에게는 풍요와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치면 반드시 보상으로 여주는 신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통해 구원계획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전했다.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가 1887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God)을 '하늘'과 '님'을 합쳐 '하느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한국적 신앙

기독교는 조선에서 샤머니즘적 신앙과 혼합된 독특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애매한 신앙으로 인해 '지성이면 감천'이란 사상에 젖어있었다.

한국인들의 정신구조에 자리매김한 샤머니즘 신앙의 토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초기 성도들은 하늘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11면으로 계속)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Galbraith, Mongo, Buxton, Benel, Boston, Salut, Seattle, Anidok, Alkansa, Anger, El Paso, Youngsang, Killen, Winton, Juseu, Tacoma, Philadelphia, and a summary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리더십 코멘터리 (115)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의 정신적 고통의 문제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다

동성애를 옹호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에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교회 대표)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최근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에 1위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37.5명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얼마 전 남가주 인랜드크리스교회에 담담하는 앤드류 스토클린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토클린 목사는 평소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으로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애는 비단 스토클린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내심이 바닥이 난 지금은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와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리더는 보통 공동체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일은 리더 개인에게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더의 소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한 위임도 효과적일 수 있다.

지성을 통한 능력을 성장시켜 나가기

체력에너지를 재충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음식을 통해 육체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또 몸이 피곤하면 사역도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체력은 영력이 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키가 10m 가까이 자라는 대나무는 버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가늘고 높이 자라는 대나무는 웅만한 바람에는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나무를 지탱해주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밑이 단단해지고 또 마디를 기반으로 줄기가 위로 합쳐져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대나무를 대나무 되게 만드는 것은 마디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생도 마치 대나무와 같아서 인생의 마디인 축복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삶이 단단해지고 더 큰 위기를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삶의 어려운 상황은 리더의 목표를 재정립하게 만들 수 있다. 삶의 위기는 리더로 하여금 자신을 평가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배우게 만든다. 그래서 리더는 위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움직여 나가야 한다. 위기는 세월이 흐르면 사라져버리지만 위기가운데 더 강해졌는지 약해졌는지는 전적으로 리더에

영성에너지, 인성에너지, 체력에너지 재충전으로 지성능력 성장 과거 안락함 탈피 현실 인식할수록 극복위한 새로운 전략 찾아

소진의 이유를 살펴보면 리더의 정신 건강 문제를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잃어버린 정신건강을 회복하라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란 번 아웃된 리더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리더가 잃어버린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재충전이 필요하다. 소진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자극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을 시간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시간을 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긴 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충전 방식이든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리더는 외로움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대화는 필요하다.

물론 리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줄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 리더 본인만큼 해답 사안

리더는 지성을 통한 능력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책을 읽기 싫거든 사역을 그만두라”고 한 존 웨슬리의 말처럼 리더는 리더(A leader is a reader)가 되어야 한다.

영성에너지를 재충전하라. 영성에너지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리더는 열정, 창조력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뿐 아니라 사역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자기를 재충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 지행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영성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묵상과 말씀암송을 통해 영성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사람들을 권면, 상담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인성에너지를 재충전하라. 리더는 인성을 개발해야 한다. 헬기를 이기지 못해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교훈처럼 리더에게는 감정 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리더가 되려면 열기, 두려움, 염려, 우울 등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사회성에너지 재충전하라. 인간관계도 에너지이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게 달려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리더의 심장은 부서지거나 더욱 단단해진다.

과거의 안락함에서 벗어나라. 과거가 더 안락하고 안전감을 제공해주지만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빨리 인식하면 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 빨리 찾게 된다. 많은 경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가짜 통제력을 만들어낸다. 위기가 닥쳐올 때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고 연약하게 마련이다. 냉혹한 현실가운데 삶의 열정을 잃고 현실 앞에 허둥대고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안락한 과거에서 벗어나면, 위기는 미래로 가는 길에 놓여진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의 문제는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리더에게는 하늘이 준 여섯 명의 정직한 충복들이 있고, 이들은 지금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구,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그리고 왜이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일상의 은혜

그동안은 바쁜 일상으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 어쩌다 씨앗을 심어서 썩어 올라오면 푹푹 따먹는 민달팽이 때문에 텃밭 가꿀 생각이 아예 안하고 지냈다. 3월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로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뒷마당에 아욱 씨를 뿌리고 상추, 깻잎, 부추, 오이 등 주변 분들이 주신 모종을 심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아기를 보듯 너무 귀여웠다. 아침마다 물을 줄 때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싹과 어린 채소를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다.

어지러운 바깥 세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용히 자라는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경이감도 느껴졌다. 심심치 않게 상추, 깻잎도 따 먹고 부추로는 오이김치도 담고 부추전도 부치고 아욱으로 국도 끓여 먹었다. 오이는 버팀목을 해줄 나무가 없어서 전지한 나무 가지로 영타리 버팀목을 해주었는데 꽃이 진 자리에 아주 작은 오이들이 몇 개 달린 채 크지를 못하고 있었다. 영양분이 필요한가 보다 싫어서 한 번 쟁겨 주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서 15센치미터 정도 되는 긴 오이가 열렸다. 아침에 물주는 일 말고는 해준 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잎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는 채소를 보면서 어릴 적 주말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다. “오이 밭에 오이가 길 쪽길쪽... 저 혼자서 컸을까 잘도 컸구나, 아니야니 하나님 키워주셨지”라는 노래이다. 아이들에게 채소까지도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노력했던 것 같다.

길게 달린 오이를 보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생각했다. 생명을 주셔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 이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좋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미치지 않는 말씀처럼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다. 물론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많은 땅을 흘리는 수고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애써 농사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다. 아침이면 해가 떠서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지고 흙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 받아서 잎이 자라고 열매도 맺게 하니 결국은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다. 우리 집 작은 뒤뜰에도 이전 주인이 심어 놓은 과나무, 십년 전에 심은 살구나무, 포도나무, 작년에 심어서 아직 어린 자몽나무가 있다. 그리고 보니 해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었던 과바도 하나님께서 키우셨음이 새삼 감사하고, 올해는 두 송이 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작년에 처음 열렸던 포도도 하나님이 키우셨음에 감사하게 된다. 나는 그동안 비록 한 번 안주고 열매가 열리면 따먹기만 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이 키우신 셈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심자가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도 감사할 뿐이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빠와 새언니, 기웃 기웃 하나님께 조급씩 마음을 여는 듯 한 형부, 믿지 않는 조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텃밭에 채소를 키우시는 자상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분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은 2주 만에 아들 내외와 막내가 집에 다녀러 왔다. 아이들이 오면 보여주려고 남겨 놓았던 큰 오이를 따고 아욱과 근대를 뜯어서 된장국도 끓였다. 상추와 깻잎도 따서 쌈을 먹으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채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몽양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토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운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718)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청년회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영양회: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회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새벽기도 매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청년인턴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환근 선교사 1. 워싱턴 번식 신학교 교수 2. 한인무대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기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영국의 학자 존 케네스... 영국의 학자 존 케네스... 영국의 학자 존 케네스...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되었고...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되었고...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되었고...

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 맛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바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름답게 차가운 레즈비언 교수에서 하나님 품으로

(2면에서 계속) 나는 내 조사를 도와줄 성경학... 나는 내 조사를 도와줄 성경학... 나는 내 조사를 도와줄 성경학...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해석...

그 편지를 시작으로 장장 2... 그 편지를 시작으로 장장 2... 그 편지를 시작으로 장장 2...

환해 읽기도 했다. 성과 정치... 환해 읽기도 했다. 성과 정치... 환해 읽기도 했다. 성과 정치...

에서 내 트랜스젠더 친구 제... 에서 내 트랜스젠더 친구 제... 에서 내 트랜스젠더 친구 제...

남치기 시작했다. 나는 죽을... 남치기 시작했다. 나는 죽을... 남치기 시작했다. 나는 죽을...

마스크 착용에도 성별 차이 있다!

(3면에서 계속) 그는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그는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그는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는... 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는... 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는...

긴다.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긴다.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긴다.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인과 마스크 착용의 강제화가... 인과 마스크 착용의 강제화가... 인과 마스크 착용의 강제화가...

르도와 모니카의 사례가 그렇... 르도와 모니카의 사례가 그렇... 르도와 모니카의 사례가 그렇...

남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남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남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머무는교회, 세계소망교회, 좋은마을교회

나침반교회, 미주양곡교회, 열매교회, 코너스톤 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미주평안교회, 엘피스사역원, 토렌스조은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은혜한인교회, 핼(PIM)선교회

대흥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주님새교회, 하늘소망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베델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교계 게시판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 ▲캠퍼스 트랙은 △박사과정: 목회학, 교회음악학, △석사과정: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리더십학 △학사: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준학사: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온라인트랙(LMS 무돌 기반의 100% 온라인 수업)은 △박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학사: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준학사: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수료과정: 유아교육, 가정상담 사역자, 비영리단체 사역자 등이다.

▲문의: (213)388-1000

미주장신대학교 학생모집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2020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위과정은 △선교철학박사 △목회학석사, 크리스천상담심리학석사, 선교학석사 △신학사, 글로벌경영학사 등이다. 본교는 유학생을 위한 1-20품이 발급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위한 Pell Grant 지원, 목회자(15%)와 선교사(30%)를 위한 수업료 할인혜택은 물론 다양한 장학제도로 학생들에게 재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최적화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562)926-1023

퀸즈장로교회 2020 VBS 온라인으로

8월 4-6일, 연령별 구분, 중국어 동일 프로그램 진행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0 여름성경학교(VBS)가 올해는 팬데믹으로 8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성국 목사는 7월 19일 열린 차세대 교육 모임에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이 흠어져 있었지만 동일한 가치관, 세계관, 신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음세대 교육을 강조했다.

VBS 참가자들이 흥미 위주의 볼거리를 찾는 어린아이들인 점을 감안할 때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복음, 재미있는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퀸즈장로교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연령별로 세분화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이해력을 그 나이에 맞추어서 전달할 수 있다.

△영아부(Infant)와 유아부(Toddler)의 자녀들은 혼자 할 수 없는 나이이므로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Mommy & Me VBS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유치부(Pre-Kindergarten)는 아직 미취학 자녀로서 영어 소통에는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동시에 진행되며 쉽게 이해하며 따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 △유년부(K-2G)

와 초등부(3G-5G)는 영어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설계됐으며 알찬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 될 것이다.

퀸즈장로교회는 특별히 어린이 중국어부가 따로 있어 이들을 위해 중국어로 같은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방식인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다간다. 아이들이 듣고 함께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간다.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방송부와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1시간을 찬양, 성경암송, 공작, 성경공부, 비디오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 방문 등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8월 1일에는 온라인으로 등록한 아이들에게 드라이브 드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티셔츠, 가방, VBS Materials를 증정하며 이날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과 풍선을 선물로 나눠준다.

등록을 원하면 퀸즈장로교회 웹사이트나 카톡으로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7월 26일 고등부 예배를 제한된 인원으로 재 오픈하고, 2-3주간 지켜본 후 중등부도 오픈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7월 21일 KAPC 뉴욕노회 목회자 특별기도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김성국 목사)가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에 걸쳐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특별히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참석해 노회원들을 격려하고 총회 첫 사업인 어려운 회원교회 돕기에 5만 달러를 지원한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부 예배는 부노회장 이종원 목사 사회로 기도 정기태 목사(부서기), 말씀 김성국 목사, 축도 이영상 목사(전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1-3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한다”며 “어떤 도전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본문에 의거해 3가지 질문 1)누가 대적하리요 2)누가 고발하리요 3)누가 끊으리요 라는 질문에 “1)하나님



KAPC 뉴욕노회 목회자 특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우리 무기는 기도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중보하심이 모든 고발을 이기게 하신다. 3)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노회 산하 목사님, 사모님들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기도회는 방정훈 목사(회록서기)의 찬양인도 후 이윤석 목사(서기) 인도로 △회개

와 부흥을 위하여/허윤준 목사 △조국의 상황(교회와 선교, 정치, 경제, 차별금지법)의 해결을 위해/이영상 목사 △미국의 상황(인종갈등, 코로나바이러스, 의료진)의 해결을 위해/박병섭 목사 △노회원들(건강이



뉴욕교회 주최 온라인 예배 방송 세미나에서 회장 양민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스마트 폰부터 유튜브까지

뉴욕교회 주최 온라인 예배 방송 세미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 미디어 분과가 주최하고 CBSN뉴욕기독교방송, CTS뉴욕방송, 단비기독교TV, 프라미스교회가 후원하는 온라인 예배 방송 세미나가 7월 20일 오후 5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중소교회 목회자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명 접수를 받았으며 주제별로 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의시간은 주제에 따라 1시간에서 30분 사이로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CBSN 사장), 김동성 부장(단비기독교TV), 손민석 국장(CTS뉴욕방송) 이충제 전도사(프라미스교회).

강의는 △쉽고 편리한 스마트 폰 온라인예배 중계 △기분을 알면 쉬운 영상 편집 △간단한 틱톡로 전문가처럼 촬영하기 △원리를 알고 따라하면 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OBS) △온라인 음향 레벨업 시키기 △알쏭달쏭 유튜브 저작권과 온라인 톨 120% 활용하기 등 6개 주제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이사장 이취임식이 코로나19로 인해 현미키 이사장 자택에서 조용하게 진행됐다.



뉴욕수정교회 장학금수여식을 마치고 황영송 담임목사(맨 오른쪽)와 기념촬영 했다

드라이브인 졸업장 및 장학금 수여식

뉴욕수정교회, 23명 졸업생 중 8명에 6800달러 지급

뉴욕수정교회(황영송 목사)가 지난 7월 12일 주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Drive-in) 졸업장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예년엔 예배 중에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인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은 주일 2부 예배 후 부모와 자녀가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로 기다렸다가 이름을 호명하면 수여자들이 나와 황영송 담임목사로부터 증서를 받고,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선물과 장학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뉴욕수정교회는 올해 총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주일학교 6명, 중고등부 7명, 대

학교 4명, 대학원 6명이었으며, 졸업 때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수정교회에서는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올해는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박수복 원로목사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1,200달러, 수정 장학금은 800달러씩 총 8명에게 지급됐다. 올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수복장학금: Rachel Choi △수정장학금: Jessica Kim, Erica Eom, Hollie Park, Jacob Lee, Areum Jo, Sarah Hwang, Edward Lee. (정리: 유원정 기자)

JAMA 중보기도컨퍼런스 온라인으로

8월 3-12일, 온라인 새벽 대각성집회 개최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주최하는 중보기도컨퍼런스가 오는 8월 3일(월)부터 12일(토)까지 열린다.

지난 20년 동안 중보기도컨퍼런스를 열어 교회와 미국과 차세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왔던 컨퍼런스는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어려워 원하는 모든 교회들과 개인들이 교회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새벽 대각성 집회를 준비했다.

지난 3개월 이상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중단됨으로 성도들의 영적생활이 많이 헤이 해졌고, 교회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다 했지만 COVID-19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며 예배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교회의 위기상황 속에서 다시 새벽기도에 불을 붙이고 온 교우들의 기도의 각성을 일으킴으로 교회가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새벽 각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시간은 주일을 제외하고 2주

간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실시한다.

강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로 성장시킨 담임 목사님인 1세와 1.5세 사역자들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달리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필라델피아교회 호성기 목사, 시카고 레이크뷰 연합교회 강민수 목사,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 강일진 목사, 뉴저지인혜체플 박반석 목사, 배성호 박사와 최순자 박사, 그리고 JAMA의 김춘근 교수와 강순영 목사가 중보기도훈련을 겸한 새벽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JAMA는 찬양 두 곡과 강사 소개, 35분의 강사 설교를 매일 YouTube에 올릴 예정이고 ipc.jamaglobal.com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설교제목과 강의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다.

후원금이나 헌금은 보낼 수 있다.

▲문의: 강순영 목사(310-995-3936), JAMA 본부(903-804-4016) (기시제공: 자마)

패밀리터치 현미키 이사장 취임식

비영리 상담 및 교육 기관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가 7월 18일 저녁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 3대 김선 이사장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하는 시간과 가졌고, 이어서 제 4대 이사장 취임하는 현미키 이사장의 취임식을 축하했다.

코로나로 인해 이사회가 함께 모이기 힘든 상황이라 현 이사장 자택에서 제 4대 이사회 임원들만 모여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현 이사장은 로체스터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메릴

랜드 대학에서 건축학석사를 마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Roche Dinkeloo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건축회사를 세워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 이사장은 AWCA와 세종문화재단에서 각각 10여년 이상을 이사로서 후원 모금 행사를 진행하며 커뮤니티 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가족으로는 부군인인 현철수 박사(속편한내과)와 콜롬비아 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슬아가 있다.

(기시제공: 패밀리터치)

10개 교회에 1000달러씩 지원

개척교회 돕는 개척교회 남가주온유한교회

개척 3년째를 맞은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병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출석 교인 30명 이하의 미자립교회와 설립 3년 미만의 개척교회며 일차적으로 10개 교회를 선정해 1000달러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

토)까지며 교회 웹사이트 www.onyouchurch.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장병원 목사는 “두 번째 지원금을 위한 후원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1만 달러가 모금되는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문의: (626)833-7787 장병원 목사



주님세운교회 이전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주님세운교회 19일 입당예배

야외예배로 천막치고 감사패 전달 등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가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17910 praire Ave, Torrance에 위치한 새 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지난 6월초에 입당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뤄졌으며 이날 입당예배도 야외 예배 장소로 천막을 치고 6피트간격을 지켜 앉은 가운데 드려졌다.

담임 박성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박 목사는 ‘주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왕상 8:27-30)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사무엘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해주셔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으

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한 이 새 성전은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관심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유은혜, 김정연 집사의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으며 신동훈 이종민 권오성 김용복 이분자 장로, 오유니 권사, 김두일 최윤진 김영훈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한 뒤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주님세운교회에서는 12일 ‘나라 살리기 온라인 일천번째 예배’로 제 40회 21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1)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교회담임)



(2)성경과 함께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문헌이 전술한 것과 같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뜻을 충분히 알게 하시려고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두신 것이라 했다.

“이 모든 책들(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눅16:29, 31; 엡2:20; 계22:18-19, 딤후3:16)고 언급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면서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경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요일2:20, 27; 요16:13-14; 고전2:10-12; 사59:21)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의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성경이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한다. 제 3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는 이렇게 답한다. “신·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The only law)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교도들은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신앙과 삶에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친히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신자들이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제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입증하였던 것이다.

2)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믿음”(Sola Fide: Only by Faith)

롬1:17). 종교개혁자들의 또 다른 모토는 오직 믿음이다. 여기서 오직 믿음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구원론의 핵심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진리는 초대교부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와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이 강조한 칭의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중심 진리였다.

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은 시대의 정신을 일깨우는 서막이요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여기서 로마카톨릭의 행위로 구원을 강조하는 모든 비 성경적인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행위로 구원을 지양하고 오직 믿음(Sola Fide)을 모토로 삼았던 것이다.

시골 수도원 출신 로마카톨릭 신부이자, 비텐베르크 신약학교수인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년 11월10일-1546년 2월18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 전통을 삶과 사역 통해 입증 종교개혁 “이신칭의” 구원론 핵심이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의 근간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갈2:1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루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진리를 재발견한 것이다. 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수감하는 믿음을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이 포문이 열린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성교회(Wittenberg Castle Church) 문 앞에 라틴어로 게시된 면죄부(행위구원

1483-1546)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순례의 과정을 통해 기성교회인 로마카톨릭교회와 교황청에 대하여 개혁적 당위성에 대한 선전 포고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카톨릭교회의 부패에 항거해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논박하고, 성경이 지니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유일한 권위

를 다해 그의 감동을 얻어내면 반드시 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은 복음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신념이다.

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전적인 무지(無知)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소절에 불평을 보며, “하느님이 보우하사..”로 바뀌 부르는 성도들이었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성경을 포함하여 ‘하느님’으로 표기된 글을 대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나와 다른 신앙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개정 한글판 성경이 출간되면서부터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유념하여 내포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보수적 교회에서는 이때부터 ‘하느님’의 유일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하느님’은 숫자에 그를 높이는 ‘님’을 붙인 사실을 부각시키며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서구 신학은 초대교회 이후 지속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이는 창조주이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전제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졌는가를 규정하기 위한 토론이다. 그러나 사마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적 갈망은 서구신학의 고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질 뜨거움이 인간의 행위를 극대화시킨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께 최선을

을 다해 그의 감동을 얻어내면 반드시 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은 복음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신념이다.

국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귀하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기도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단지 이 모든 뜨거운 신앙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혹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정

당한 반응이 아닌 자신의 소원성취를 위해 절대자를 대면하려는 한국적 신앙의 독특한 정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성경은 열정으로 채워진 뜨거운 신앙행위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먼저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한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동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제일교회, 양곡교회, 왕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의교회, 충신교회.

‘2020 코리아페스티벌’ 내년 6월로 연기

25-27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 강사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2020 코리아페스티벌’이 내년 6월로 연기됐다.

2020 코리아페스티벌 사무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상황으로 부득이 페스티벌을 연기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사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행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명칭도 ‘2021 코리아페스티벌’로 변경됐다.

사무국 측은 “행사를 앞두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들을 돕기 위해 교회 방역 및 마스크 지원, 온라인 방송설비 구축 등을 지원했다”면서 “내년에 진행될 2021 코리아페스티벌을 위해 한국교회에 도움 되는 각종 자료를 출판하고 포지를 재정비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관마다 제각각…교회만 ‘좌불안석’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지침, 지자체들 해석 달라 혼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정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들이 엇박자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은 15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 마치 교회를 신고 대상으로 겨냥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공문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최근 교회의 소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면담 이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정부교구청 등 지역 종교단체에 수정된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했다. 기존의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

을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제 시행 운영 알림’으로 바꿨다. 기존 공문에 있던 “정규예배, 찬송 자체·통성기도 금지” 등 교회를 겨냥한 듯한 문구도 모두 뺐다. 다만 교회를 특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 등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이나 사람을 ‘안전신고’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계획’을 내놨다. 다만 교회 등 종교시설을 특정하지 않았다.

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구리시의 공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포상금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데 구리시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전신고제를 통해 방역수칙이나 지침 위반을 신고하더라도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2021 페스티벌은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하는 기독교 전도대회다. 개최 도시의 지역 교회 중심으로 각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많은 성도를 동원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사를 통해 전도된 이들이 지역 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1973년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며 처음으로 시작했다. 당시 집회에만 연인원 330만명이 참석했다.

건 아니라고 밝혔다.

구리시의 신고포상금제 문제를 계기로 현장 목회자들 사이에 선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A목사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강압적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을 두고도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본은 의무화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을 때의 처벌 시점을 지자체에 맡겼다. 보건복지부 김경숙 생활방역팀장은 “교회 등의 집합제한 명령은 10일 오후 6시부터 즉각 시행됐다”면서 “다만 지자체에 따라 처벌시점은 다를 수 있다.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지도한 뒤에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에 3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QR코드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수정했다.

교회의 동참을 부탁했다.

김학유 함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조선은 품은 선교사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동강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던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부터 평생 조선의 의료사역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로제타 홀 선교사 등을 재조명했다. 김 교수는 “미지의 땅이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노출된 땅이었던 ‘조선’을 품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반도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한국교회의 초석이 됐다. 한국교회도 이들에게 진 빚을 땅끝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조사로 교주만 구속돼도 신천지 이탈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강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는 “수년간 신천지의 피해를 알리는 활동을 했지만, 이만희 교주가 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이만희 교주의 구속만이 피해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교주의 구속수사를 계기로 신천지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종교사기꾼의 실체를 인식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성추문에 대한 마무운동이 일어나고 베드로지파 맞다이지파 등 불투명한 재정문제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월간 ‘문화목회’ 창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와 스마트폰 공연을 지칭하는 폰서트(Phonecert)란 말이 회자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 폰서트를 주도할 문화목회 월간지가 창간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문화위원회는 매달 10일 ‘월간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즉각 취소하라”

한교총 기자회견, “방역 목적 아닌 기독교 탄압 가깝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8일 교회를 상대로 시행한 방역 강화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종교단체 중 교회만 지정해 방역 지침을 낸 것은 방역 목적이 아닌 기독교 탄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 회장 회의 보고 및 국무총리 초청 오찬 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공동으로 한국교회에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성명을 내면서까지 정부의 방

역 지침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하지만 8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교회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다.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교회를 범죄단체 취급하는 결과”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어 교회의 코로나19 감염 관련 정부 통계에 오류가 있으며, 그로 인해 불공정한 조치가 내려진 만큼 관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한교총 상임회장회의 결의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화를 통해 기독교계와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

“기독교에 대한 무슬림 오해 풀어줘야”

예장합동 ‘2020 총회이슬람아카데미’ 선교 대안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이슬람대책위(위원장 정영교 목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2020 총회이슬람아카데미’를 열고 국내 거주 무슬림 300만명 시대,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욱 총신대 교수는 이날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민족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질서와 충돌하는 종교적 이념 요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포비아’가 팽배한 현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의도 숨어 있다”

영남지역 목회자 200여명 차별금지법 반대 표명

영남지역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18일 대구 호텔인터볼고에 모여 정부의 교회시설 방역지침 의무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흥기 대구성서회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성창민 부산성서회운동본부 사무국장, 권성수(대구동신교회) 김종원(경산중앙교회) 강진상(양산 평산교회) 지광선(울산 내일교회) 김용수(영주교회) 박진석(포항 기쁨의교회) 목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미래통합당 기독교의원들 기자회견

미래통합당 기독교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재익(미래통합당 기독교의회장)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 조장법’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차별 철폐를 하고 있는만큼 불필요하다”고

을 지적했다. 이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환경과 필요에 따라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 난민선교를 적절하게 활용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무슬림들의 오해를 풀어줄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석(FIM국제선교회 대표) 선교사는 유럽 내 무슬림 증가가 가져온 현실을 진단하며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을 짚었다. 그는 “유럽과 아랍 사람들의 연합과 결속을 위해 만들어진 유라비아(Eurabia)란 단어가 지금은 이슬람화된 유럽의 상징어가 됐다”며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70%가 아

한다”면서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도 예배 방해인 만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14일 한교총 지도부 등과 오찬에서 교계가 2일 성명을 낸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교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경기도 성남과 구리, 경북 청송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신고포상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과잉대응이므로 즉각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정 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시아에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유럽의 모습이 곧 아시아에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선교사는 “사리아법 도입으로 인한 법체계 붕괴, 명예살인, 일부다처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 등 무슬림 증가와 함께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대의 이슬람 선교를 위한 키워드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의 건강성 회복’, ‘다문화권 전도에 대한 열린 자세’를 제시했다.

강의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정영교 이슬람대책위원장은 “거둬지는 난관과 시련이 저항력을 키우고 분별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는 개 명명사관의 요체”라며 “한국교회가 다양한 연구와 사역을 접목해 이슬람 선교의 지향점을 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려면 교계와 시민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상 목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감언이설로 가정을 파괴하고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영길(범무법인 아이엔에스)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독소조항을 빼더라도 ‘등’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할 수 있기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있어 교회를 대상으로 기혹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쏟아지면 교회와 목회자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기독교인회는 성 소수자를 옹호 양산하는 반성정적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면서 “여당과 진보정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미래통합당 기독교인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배석한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총리와 정부 기관이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발표한 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교회를 지목해 발표한 강화된 방역 지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개신교회로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과 개신교회에 사과하라”면서 “교회가 방역을 위해 솔선수범하는데도 마치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낙인찍는 건 교회를 향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치며 수정·보완될 것”이라며 “위험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문화목회의 여정이 막 시작됐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선교와 청년목회 현장 이슈기도 실렸다. 벤틀리교회 김경숙 목사는 결과 품으로 사역하는 청소년 선교 이야기를, 예능교회 심성수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한 예능청년교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조선 품은 선교사들에게 진 빚 갚아야”

제1회 한국선교(귀츨라프) 188주년 기념대회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1803-1851)에게는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그는 1832년 7월 22일 충남 보령 고대도에 첫발을 내디디며 한국 최초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최초로 한문 성경과 전도지를 전달했으며, 최초의 주기도본 한글 번역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대도 환자들에게 양약을 나눠주며 최초의 서양 근대 의술도 베풀었다.

귀츨라프 선교사가 보여준 선교 열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14일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린 보령시기독교

연합회 주관 제1회 한국선교(귀츨라프) 188주년 기념대회다.

박노문 고대도교회 목사는 이날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귀츨라프 선교사가 구상한 동북아 선교 전략에 주목했다. 박 목사는 “귀츨라프 선교사가 1832년 2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한 선교 여행의 목적은 제주도가 중국, 만주, 조선, 일본을 잇는 선교기지로 삼아 합당하지 않아보기 위해서였다”며 “최초로 동북아 선교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 목사는 한국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 사역에 한국

검찰수사 받더니 갑자기 꺼낸 카드는?

영생한다던 이만희 교주 지병 호소에 귀가 조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7일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만희 사위이자 피해자들은 철저한 구속수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지병을 호소하면서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은 신천지가 가족의 요구로 이단 상담을 받는 등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잘 써먹는 거짓말 중 하나”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가 국가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기에 교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유 광주이단상담소장은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1980년부터 9월 이후 이만희의 영생은 시작됐다”면서 “따라서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는 천년만년 사는 이

간자로 추앙받는다. 신천지 내부에선 ‘고령’이라는 수식어는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부터 탈퇴자들이 ‘신천지의 최대 시험은 이만희가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교리가 바뀌어 재림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옆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쯤 되면 신천지 간부라면 이만희의 시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소장은 “고령이라서 구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천지에 속아서 10년을 허비한 A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도들 앞에서 건강 이상 없다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니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검찰수사 때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도들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는 청년처럼 추앙해놓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령의 노인으로 지병을 호소했다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면서 “철저

선교의 창 (15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인간의 심성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

당신은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나 읽고 있는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한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2달에 1권 읽는 격이 된다. 연합뉴스에서는 한인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1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후진국 수준이다. 문화강국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다. 선교사나 해외 이민자들의 실태는 어떠한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대중 집작은 간다. 타향살이 하는 자들에게는 고국의 사람들에 비해 더욱 여유가 없다. 그 말은 독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로서 독서는 한량(閑良)들이 하는 사치로 치부하는 자들도 있다. 현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현대인은 그렇게 바쁘고 마음적인 여유가 없으면서도 TV, 컴퓨터, 핸드폰 등에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독서는 "여가"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취향과 생활철학의 문제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서는 누구에게나 필요조건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독서를 잘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1. 독서에 대한 위인들의 한 마디
-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

- 2. 독서의 필요성
- 독서가 인간에게 주는 유익

독서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위인들은 한결 같이 책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보화를 썼다. 영적 지도자는 적어도 주당 1 권 이상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체와 같다(키케로). 모름지기 남자는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두보).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 쉽게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소크라테스). 가장 훌륭한 벗은 가장 좋은 책이다(체스터필드). 책 속에는 과거의 모든 영혼이 가로 누워 있다(토마스 칼라일).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데카르트).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독서처럼 값싸고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몽테스키외). 만 권의 책을

은 무엇일까? 우리는 책에서 삶의 교훈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도 한다. 미처 몰랐던 그 무엇을 깨닫기도 하며, 반성을 하기도 한다. 책은 인간을 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독서를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상상력을 길러준다. 두뇌혁명을 가져온다.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신경학 연구 결과에서도 읽기와 같은 인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손실률이 30% 낮아진다고 밝혀졌다. 독해와 문장력을 길러준다. 시야가 넓어진다.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 전문적인 분야의 이해를 도와준다.

관심 주제의 책들을 10권 이상 20권 30권 읽다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폭넓은 지식을 쌓게 된다. 편협한 사고나 틀에 박힌 관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등장인물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 인간의 정서를 고취시켜 준다.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여가를 즐기게 한다.

3.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

21세기 현대인은 독서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방해요소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매체이다.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 요소가 강하다.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는 주된 이

것은 다 핑계일 뿐이다. 인간이 영상매체에 길들여지는 것은 불행이다. 그러면 독서를 잘 할 수가 없다. 실사 성경이나 양서 등을 읽는다 해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게 된다. 나아가 그 심령은 메마르고 강박하게 되며 이웃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4. 독서를 잘하는 방법

첫째는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주, 월, 년 등으로 독서량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포기하고 일상생활에 몰입되기 쉽다.

둘째는 관심 분야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관계가 없으면 의욕이 떨어진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 삶의 질, 인격,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책을 선별해야 한다.

셋째는 독서의 기술이 있어

기에 삶이 지루하지 않다. 다섯째는 독후감을 써보는 것이다. 독서는 읽는 행위만 아니고 쓰는 행위에서 완성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읽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면 쓸쓸한 기분이 든다. 기록은 독서의 가치를 배가시킨다.

맺음말

독서는 밑바닥 인생도 끌어올리는 도르레 역할을 한다. 세상에는 독서로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처칠,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이다. 저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학습부진 아였으나 한편으로 아무도 못말리는 독서광"이었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독서는 저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세상을 바꾸었다. 김구 주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一日不讀書 口中生荆棘)"고 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중 누가 저들보다 더 바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투덜거리지 말아야 한다. 낮에 바쁘면 밤중에 읽고, 갓 날 바쁘면 흐린 날 읽으면 된다. 독서를 경시하고 세상에 쫓겨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은 그저 뿌리깊이 균근의 한 일삼일 뿐이다. 독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부여와 의욕의 문제이다. 아무튼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와 소속한 공동체를 위해 독서를 해야 한다. 더 욱이 영적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주당 1권 이상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jrsong007@hanmail.net

드라마 예언서 (3)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서역원 LA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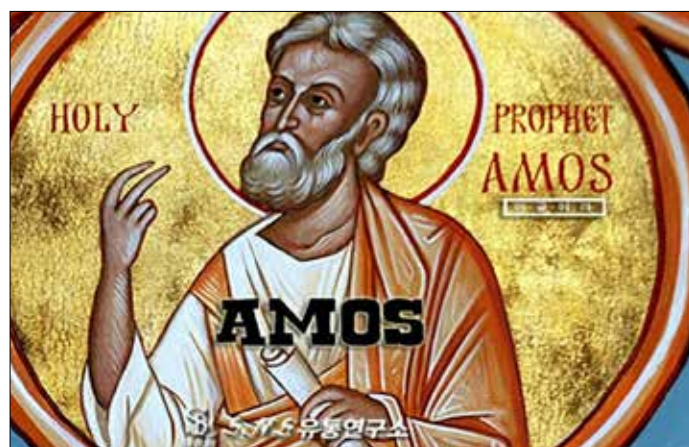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호세아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고 약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암1:6-16). 아모스서도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관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그 심판은 2년 후 지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암1:1).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곳곳에 지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아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암3:14-15),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암6:11),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하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암8:3), 온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암1:1-2). (모든 나라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먼



2:6-16).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선포됩니다. 만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며,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암3:1-15).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은 약자를 학대하고(암4:1-3),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행위를 하고 있으며(암4:4-5), 여러 가지 죄조들로 심판의 메시지(기근, 가뭄, 풍제와 총재, 전염병, 지진)를 보

시기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살 것이다!"(암5:4-20)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와 제물을 드려도 나는 기뻐하지 않고,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암5:21-23)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처럼 너희의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5:24)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범 보여야 할 지도자들은 재앙 같은 심판의 날이 멀었다고 말하며 백성들을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양 떼를 잡아먹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고, 큰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귀한 기름

의해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되는 모습(암7:7-9)을 보여주셨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암8:1-10).

"여름실과"는 히브리어로 '카이트'이며, '끝'은 히브리어로 '케츠'입니다. 아무리 여름실과처럼 풍성한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끝', 즉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 기둥을 무너뜨리는 환상(암9:1-6)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큰 심판(암8:11)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실 지라도 이스라엘은 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곡식을 채질할 때 돌맹이를 골라내듯이,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가운데서 골라내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암9:7-10).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고(성전의 회복), 만국을 기점으로 얻게 하시고(왕권의 회복),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곧장 씨를 파종할 만큼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살의 회복).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암9:11-15).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아모스서: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

며 애굽 강 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암8:8),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암9:1).

아모스서의 내용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오기 2년 전에 남방 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아모스에게

저 전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암1:3-2:3). (영국들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율법을 멸시하며 세상을 따라갔기에 유다를 심판할 것이며(암2:4-5), 북방 이스라엘도 약자들을 괴롭히고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심판할 것입니다(암

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 습니다(암4:6-13).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애痛的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앞도려졌다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성읍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암5:1-3).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

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죄를 지은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암6:1-7).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5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뜯어 먹는 모습(암7:1-3), 불이 내려서 큰 바다와 육지를 다 먹어 버리는 모습(암7:4-6), 다림줄의 측정에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감독의 자력(딤후1:8-9)찬421장

적극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라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릇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개인이 가질 적극적인 영적 성품 5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교훈처럼 참 경건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둘째,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말씀이 적용됐는가를 살피는 신실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셋째,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교회가 가질 위대한 무기입니다. 의와 거룩과 경건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절제를 나타냄을 가리킵니다. 감독은 개인의 경건은 물론 교회의 경건의 본이며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화 목회사역의 실제(딤후1:10-11)찬410장

목회란 목사가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잘 살피어야 할지, 첫째, 불순종과 거짓말하는 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과 진실한 행위의 분을 보일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더러운 이득 보려는 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경건을 이용해 자기 탐욕을 채우려는 외식자를 책망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은 목회사역의 목표 중 하나여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는 손해 보더라도

주께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를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은 언약의 기초 위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은 말씀에 의해 분명히 가르쳐져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가정목회는 물론 교우가정이 잘 서도록 부부간 언약을 잘 지키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수 그레데인에 대한 목회적 책망(딤후1:12-14)찬375장

디도 목사의 사역지인 그레데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첫째, 그들은 거짓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된 말에 능숙해 사탄의 종으로서의 열매를 보였습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둘째, 또한 그는 게으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근면하나 영적 유익을 얻는

데는 무척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셋째, 목사의 강한 책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꾸짖음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이단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더 밝듯이 목사의 삶과 말의 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목회적 책망을 잘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목 선악의 분별 기준(딤후2:15-16)찬519장

목사는 선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목회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각으로 이뤄집니다. 이 2가지의 분별이 요구됩니다. 첫째, 깨끗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세로 두려움과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15),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결한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

를 찾는 사람이 깨끗합니다. 둘째, 더러운 자란 외식자를 가리킵니다(16). 이것은 선행과 복종을 버리고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목사가 성경을 밝히 알고 성령의 빛 아래서 현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야 합니다(갈5:22-23). 이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금 목사의 신실한 설교사역(딤후2:1)찬539장

목사의 주 임무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에서 말한 수단을 통해 가르치는 일인데 어떻게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바른 교훈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성경 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을 바로 깨달은 신앙을 구합니다.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

지를 잘 이해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것에 합당한 것인 성경말씀을 적용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기준을 오늘이런 현장에 잘 적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에 힘씀으로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설교중심 목회로 교회부흥을 가져오는 신실한 설교자가 됩시다.

토 늙은 남자에 대한 목회적 권면(딤후2:2)

늙으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전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 때 목사는 노년층의 교우들에게 경건의 기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절제, 경건 신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표준입니다. 방종하기 쉬운 삶에 절제를 지키는 것 곧,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가

게 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 대해 믿음과 사랑의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함으로 늘 영적 견고한 자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해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다 살았다하여 방종하고 분노하기 쉬운 유혹에도 견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알기쉬운 IT 칼럼 (5)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한국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께(2)

코로나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모두 잃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경우 감기환자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웬만큼 아프면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개인위생 즉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고 하니 자연스레 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많이 살아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공기도 좋고 아주 시원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방이 끝방이라 3면에 문과 창문이 있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맞바람이 불어 아주 시원합니다. 밖에서는 새가 지저귀는데 확실히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iT 최강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외국인에게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에게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 확인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방문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한국에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게 요청을 한 것일 테니 이 글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미국에서 내 스마트폰 플랜이 한국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통신회사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회사라도 내가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출발 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제가 Verizon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T-Mobile에서 시니어 플랜을 아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량을 충분히 한 이유인지 이곳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면 로밍요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을 통한 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로 충분하다면 미국 데이터 플랜에 의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플랜이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와이파이 도시락이라 부르는 것

을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도 가능하지만 부피가 작지 않습니다. 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반드시 들고 다녀야만 합니다. 이것은 공항에서 렌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체류를 해야만 한다면 전화도 사용해야 하기에 유심칩(Simm Card)을 갈아 끼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Minor 통신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결제나 본인 인증을 본인소유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누군가가 대신 해주어야만 합니다. 제 경우 후배가 LG U+에 가입해주었고 제가 있을 집으로 미리 도착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스마트폰의 Simm을 내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홈을 바늘과 같은 것으로 누르면 튀어 나오게 되어 있어 그것을 잘 보관하고 (이것은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갈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칩을 끼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컴퓨터에 접속하여 추가자료를 넣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 몇 번 껐다 켜면 잠시 후 동작합니다. 이때 대신 등록해주는 분이 기간을 정할 수 있고 특별하게 약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니 사용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물론 요금은 친구의 크레딧카드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 친구에게 돈을 드리면 되겠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성폰은 LG U+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개통했습니다. 삼성폰의 경우 작년엔 CU에서 사용했습니다. CU는 편의점인데 헬로모바일이라는 곳이 통신회사입니다. 즉 헬로모바일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자가 격리할 곳이 만일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이런 방법을 격리하기 전에 완결해 놓아야 합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스마트폰의 내 위치추적을 통해 이 탈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통신플랜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는가, 혹은 전화사용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 플랜을 맞게 선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격리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격리 후에는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중교통과 한국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kcdd1217@hanmail.net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터/뷰

신설되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디렉터 이현아 교수 “기독교 정신 이념 바탕, 사회복지사 키운다”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사회복지학과(Bachelor of Arts in Social Work, BASW)가 개설된다. 가을학기부터 열리는 20명 정원의 BASW 과정은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하며 8월말에 학업이 시작된다. 본교 BASW를 지원하려면 서류기준으로 GPA 2.0이상이어야 하고, 사회복지학문에 관심이 있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자들이 지원가능하다. 또한 교회와 선교사역현장에서 있으면서 좀 더 복지사역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BASW 디렉터로 재직 중인 이현아 교수와 만나 BASW 과정개설과 사회복지학에 대해 들었다.

-WMU의 BASW과정 개설 학과와?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의 관계

WMU의 사회복지학과 디렉터 업무를 시작하며 한인커뮤니티의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라는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학과운영을 해야 하나요. 정신건강국에서 실시했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한인들의 고민들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에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코비드19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야 나가야 하는지 있었어요. 영어구사의 불편함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한인 소셜워커들의 활동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학교에서 시작되는 BASW과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이며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라는 학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차원의 복지문제를 이해하는 시도를 공부하고, 그 해결방법을 연구, 실천하는 분야입니다. 특별히 저희학교의 BASW는 기독교 정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역을 위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WMU의 BASW 프로그램은 4년 과정으로 학업을 온라인과 온캠퍼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WMU는 ATS로부터 100% 온라인 교육 승인을 받아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반교양, 성경 및 신학과목, 사회복지 과목 10과

201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이현아 교수는 2014년 강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으며,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 CISM(한국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했다. 이 현아 교수는 2017년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미국 한인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들어가는지'에 대한 비교연구하며 사회복지현장을 보게 됐으며 앞으로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해 노인복지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목 중 전공필수과목 8과목 현장 써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



이현아 교수

올 8월말 개학, 20명 정원, 100% 온라인수업 가능 한인 소셜워커 활동 기대, 사회복지 선교 역할 수행

실습 2과목으로 구성된 12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전공과목 못지않게 성서/신학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신과 이념, 영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

회복지학 전공과목은 미국 사회복지교육협회의와 한국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전공과목들을 구성했습니다.

또 BASW 과정의 마지막 두 학기에 걸쳐 실시되는 현장실습이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학문은 머리뿐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실천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현장실습은 1대1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마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한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정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협약을 맺은 학회와 연구소를 통해서 기독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사회복지학과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WMU 졸업후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게 되면 각종 사회복지

있죠. 하지만 영어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의 경우 영어권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절워커가 있는 곳이면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선교에 대해

기독교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회복지학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사회복지선교입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를 통해 성도와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 선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나 헌신을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즉 지역 주민과 교회의 욕구에 맞춘 복지사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와 선교현장에서 어떻게 배운 걸 녹여낼 수 있을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8월말 시작되는 WMU의 BASW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값진 배움을 얻고 지역사회 나아가서 한인사회 필요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 (213)388-1000 (박준호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류머티스성 관절염

퇴행성관절염과 구별 중요

의학의 발달과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

로 퇴행성관절염이 있고 또 여성에서는 골다공증,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이 많다. 이들 질환은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노화의 속도에 비례해서 발병이 증가한다. 관절염은 대부분 퇴행성관절염이지만 간혹 류머티스 성관절염도 보이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질병이다.

-설유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중반 여성 L씨는 6개월 전부터 왼쪽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가

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졌고 몇 주 전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쉬고 있었다. 통증은 손목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퍼졌고 어떤 날은 무릎이 아팠다가 다음날은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다. 즉 아픈 부위가 이동하는 것이다. 타이네놀 등 소염제를 먹어도 통증이 진정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L씨는 관절통 외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식욕이 줄거나 체중 저하는 없었고 발열이나 호흡기 또는 위장 장애 증상도 없었다. L씨를 검진했을 때 혈압과 맥박, 체중 등은 모두 정상에 속했다. 이학적 검사상 왼

쪽 손목이 약간 부어 있었고 촉진상 통증을 느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왼쪽 손목 방사선 검사상 손목뼈는 정상이었다. 병력과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은 관절만 침범하는 퇴행성관절염과는 달리 인체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오는 자가 면역질환으로 관절뿐만 아니라 폐, 눈, 근육 등에도 침범할 수 있는 질환이다. 중년 여성에서 흔히 발병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10년-20년

이내에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은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고 아직 완치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약물 치료로 병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있다.

관절염이 더욱 진행할 경우 관절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교체를 실시하기도 한다.

▲문의:213-383-9388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 거짓말을 한다, 침묵, 말그릇,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두란노서원 213-382-5400, 말씀사 714-530-2211, 베델서적 949-854-9191, www.koramdeo.com, www.duranno.us, www.lifebook.co.kr, bethelbook@hotmail.com, 북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2) 'Son Ministries' 대표 김정한 목사

'자기대면의 시간' 통해 내 안의 영적혁명 갖는 기회로

-선미니스트리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SON Ministries 시작은 한인 교회의 차세대 2세들을 위한 전문 단기선교훈련과 파송사역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와서, 폴라에서 공부하면서 단독으로 선교훈련이 어려운 중소형교회들의 영여권 2세들을 위한 단기선교전문 훈련과 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996년도에 시작했고 44개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현재는 '소중교회운동'이라 하여 소형+중형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과 황금기운동으로 은퇴한 성도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연금으로 선교지에 가서 전문사역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지요. 이 운동은 5개의 소중교회들이 선교공동체를 만들어 어느 교회에서든지 황금기선교사가 나오면 공동을 파송하는 사역입니다. 한 교회에서 50-100달러 선교비를 후원하고 각 교회에서 파송선교사로 인정하고 파송하는 동원사역이지요.

또한 선교전문인터넷방송(www.gmanradio.org)를 통해서 전 세계 한인선교사들의 정보 네트워크 교회와 성도들에서 선교정보를 전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WMO 운동으로 한인 세계선교 기회운동을 펼쳐서 선교지의 필요한 선교인력을 선교사들이 한인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선교사를 동원하는 선교박람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캘리포니아 교육국에서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선교훈련목적으로 GMAN University(B.A, M.A)를 승인받

고 선교사로 나갈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네트워크와 한인교회들에게 선교지 정보를 나누고 평신도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만나 귀 선교단체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시대적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인 어려운 환경이 실제로 영적혁명의 출발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독교의 본질, 교회와 선교의 본질, 성도와 신앙생활의 본질, 재정의 본질, 건강의 문제, 가정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시대라고 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본질을 다시 보게 하는데 도움도 주지만 두려움과 위기감을 주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문제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의 선교단체의 재정과 사역의 진행이 위축을 받아서 선교회 종립의 위기감도 경험하는데 이것은 현재 모든 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특히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겪고 있는 위기감은 선교후원금의 감소입니다. 선교지에서 자립선교의 기반을 만들어 놓은 선교사들은 그나마 위기를 넘기고 있

겠지만 선교지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선교사들과 특히 은퇴가 가까운 선교사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손실로 본다면 올해는 단기선교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선교지에서의 또 하나의 손실이고 교회로서도 선교사역의 중단이라는 면으로 볼 때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비대면이라는 시기의 특징으로 교회들과의 단절, 후

현재는 영적혁명의 틀 안에서 볼 때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우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선교를 해오면서 분주했던 시간을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로서도 선교사역의 중단이라는 면으로 볼 때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비대면이라는 시기의 특징으로 교회들과의 단절, 후



대표 김정한 목사

'사랑의 마스크운동' 으로 코로나 뚫고 올여름 '국내단기선교' 동참하길 사역: '소중한교회운동', 선교전문인터넷방송, GMAN University

원자들과의 단절, 선교사들 간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기술로 네트워크와 온라인대면이 진행되지만 아직 대부분의 어려운 나라들은 인터넷사정이 약하여 선교사들의 소통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더구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천소식을 들을 때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코로나시대에 당면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새로운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은 모두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기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환경의 문제가 있지만 선교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내안에 우선 영적

야 합니다. 영원한 생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없습니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사망으로 이어지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감염이 되어 생명을 잃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 혼자라면 끝

만들어 4,600여개의 한인교회들이 제2의 청교도들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위축되어 내자신, 내가정, 내사업, 내교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여, 미국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선교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sonministry@gmail.com

시론

(3면에서 계속) 그동안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나 그보다 중요했던 인간들의 세상살이처럼 살아온 나의 소시미터를 우주적 공간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의 소시미터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성경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척도가 되어온 소시미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시미터의 측정기준을 바꾸면 된다.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회복하면 된다. 측정기준은 캐논(cannon, 기준)이다. 그 사회생활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예의 있게, 배려하며 살아왔고, 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모

범적이고 세상과 구별한 교회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다름을 나누어 선을 긋는 구별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성별(聖別, 거룩한 구별)이여 거룩이다. 그리고 그 성결한 거룩이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캐논(측량기준)이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세상적이었던가? 방법도, 교훈도, 배움도, 나눔도 심지어 서로간의

교제도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의 소시미터로 눈금이 잘못 그려졌던 것이다. 이제, 정확하고 정교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삶의 바로미터, 소시미터로 삼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탕자의 그 밤은 얼마나 길었을까. 자고 깨면 1시, 또다시 눈발이

뒤적이다 깨보아도 2시... 언제 동이 터올 것인가 기다리던 탕자의 아침이 밝아오면서 마침내 해가 떠오를 때 탕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떠는 마음을 다지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밤새 하나님과 살바를 잡고 씨름하던 야곱이 맞이한 아침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밤새워 살바를 잡고 씨름한 그 인내와 끈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

고 "그래 네가 이겼다고 해줄게"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밤은 얼마나 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라는 영원을 가르쳐주고 있다. 교회들이여 힘을, 기도와 말씀의 힘을 공급받자. 그것이 살 길이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항공대학(원): B.S. in Aviation Management/Fligh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경영대학(원):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리더십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국방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Ph.D. in Leadership

상담대학원: M.A. in Counseling, Ph.D. Counseling Psychology

교육대학원: M.A. in Education, M.A. in TESOL,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신학대학(원): B.A. in Theology,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 Ph.D. in Leadership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Ph.D. in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